

중세의 여성 지성과 문자의 관계*

이경하**

차례

1. 문제제기
2. 여사(女士)의 한문 글읽기
3. 철부(哲婦)의 논리적 말하기
4. 언문/구술을 통한 지식의 습득
5. 맺음말

국문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중세 한문문명권의 여성 지성에 관한 논의를 한문 글쓰기가 가능했던 여성 문사들에 한정하는 관행화된 시각에 문제를 제기하는 데 있다. 조선은 한문과 언문이 공동문어와 민족어의 위계 속에서 신분과 성별에 따라 그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현저하게 달랐던 중세 이중언어사회의 보편성을 잘 보여주는 사회이다. 이 글은 중세의 이중언어체계에 기반한 조선에서 공동문어인 한문이 여성 지성의 구축과 발현에 과연 필수적인 것이었을까 하는 의문에 대한 거친 답변이라고 할 수 있다.

논의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우선 중세 유교사회에서 지성의 개념을 '사물에 내재한 이치를 깨닫고 실천하는 정신'으로서 규정하고, 파편적인 지식이나 해박함의 차원을 넘어 도덕적 본체에 대한 자각과 실천을 요구하는 개념으로 파악하였다. 2장에서는 지적인 여성을 가리키는 여사(女士)의 용례를 통해, 비록 한문 글쓰기의 주체가 아니었다더라도 광범위한 한문 글읽기를 통해 지성의 구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07-361-AL0016)

**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연구교수

축에 힘썼던 여성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3장에서는 『열녀전』에 실린 철부(哲婦) 즉 ‘말 잘하는 똑똑한 여성’의 일화에 주목하여, 여성 지성의 발현이 말하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측면을 살폈다. 4장에서는 중세 이중언어체계에서 한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등한 위치를 점했던 언문과 구술의 영역에서도 여성 지성의 창출이 가능할 수 있었음을 논의하였다.

핵심어 : 지성, 문자, 이중언어, 여사(女士), 철부(哲婦)

1. 문제제기

이혜순 교수는 『조선후기 여성지성사』에서, 고전을 공부하고 한문으로 글을 썼던 17세기 이후 여성 엘리트 지식인으로 호연재, 윤지당, 정일당 등 여럿을 꼽고, 그들이 남긴 글에서 당대의 사회질서와 시대정신에 대한 의식과 비판을 분석해낸바 있다. 또한 이들의 문제의식이 17세기 이전의 여성 지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공적 세계에 대한 여성의 관심과 비판, 자의식이란 측면에서 규명하고자 하였다.¹⁾

지성사 서술이 일반적으로 지식계급의 관념과 의식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선시대 여성지성사를 서술함에 있어 ‘한문으로 글을 읽고 썼던’ 여성 문사(文士)들에게 주목하는 것은 일견 당연해 보인다. 중세 유교문명권에서 공식적으로는 ‘문자’[漢字]를 소유할 수 없었던 여성이 한문을 통해 사유하고 그 사유와 감정을 표현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가 이미 지식계급의 일원이며 여성지성사의 주역일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고금과 성별을 막론하고, 지성의 형성과 발현에 있어 문자의 소유가 과연 얼마나 필수적인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든다. 여성 지성에 대해 탐색하려 할 때, 결국은 고금의 여성 작가들

1) 이혜순, 『조선조 후기 여성지성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7.

에 대한 논의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일까? 도대체 지성이란 무엇인가?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즐겨 썼던 표현 가운데 ‘진심지성(盡心知性)’이란 말이 있다. 『맹자』에서 유래한 말인데, 마음을 다하여 진리를 탐구하고 본성을 안다는 뜻이다. 진심지성과 같은 의미로 더 유명한 말이 『대학』의 ‘격물치지(格物致知)’ 개념이다.²⁾ 주자학에서 격물치지는 사물에 나아가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는 것, 이로써 우주적 본질(天理)에 대한 직관과 도덕적 본체에 대한 자각에 이르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치지를 위한 격물의 방식에 대해서는 주자학과 양명학의 해석이 달랐다. 주자학자들은 바깥 사물에 대한 탐구를 위해 독서와 같은 외적인 공부를 강조한 반면, 양명학자들은 마음의 공부와 실천을 훨씬 강조했다고 한다.³⁾ 요컨대 지성이란, 부단한 공부를 통해 모든 사(事)와 물(物)에 내재한 리(理)를 깨닫고 실천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성의 구축과 발현에 있어서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은 얼마나 필수적인 것일까? 사물의 이치를 깨닫기 위한 방법이 공부이고 공부의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 책 읽기라고 할 때, 책 읽기에서 핵심은 책인가 읽기인가? 읽기가 핵심이라면 문자 해독력이 지성의 구축에 필수 요건이 되고, 계층과 성별에 따라 문자의 접근가능성이 달랐던 중세에는 특히 공동문어문자인 한문 해독력이 관건이다. 만약 책이 핵심이라면, 문

2) 『맹자(孟子)』, 『진심장(盡心章)·상(上)』 “그 마음을 다하는 자는 그 본성을 안다. 그 본성을 알면 하늘도 알게 된다”(盡其心者, 知其性也, 知其性, 則知天矣). 이 구절에 대해 주희는 ‘진심지성’이 『대학(大學)』에서 말하는 ‘격물치지’를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3) ‘격물’과 ‘치지’는 본래 도덕적 수양과 사회적 실천을 위한 선행 조건으로 제시되었던 개념인데, 송대에 이르러 인식론적 의미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의미가 확장되었다. 격물치지에 대한 주자학적 입장이 바깥 사물에 대한 탐구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객관주의적이고 주지주의적이라면, 양명학의 입장은 오직 마음의 공부와 실천을 역설한다는 점에서 주관주의적이고 실천적이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표를 도덕적 실천에 둔다는 점에서는 두 입장이 동일하다. 격물치지의 개념에 대해서는 한국사상사연구회 편, 『조선 유학의 개념들』, 예문서원, 2002, 350~373쪽 참조.

자 해독력이 지성의 필수 요건이라고 할 수는 없을 듯하다. 책이 담고 있는 내용에 접근하는 방식은 읽기 외에 듣기가 있고, 한문을 언문으로 번역해서 읽기도 있기 때문이다. 거친 도식이긴 하지만, 적어도 중세 여성의 지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그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에 좀 더 천착해 봄으로써 중세 여성지성에 관한 논의의 전제를 재검토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2. 여사(女士)의 한문 글읽기

‘여사(女士)’는 조선시대에 지적인 여성을 가리킬 때 보편적으로 널리 쓰인 용어이다. 여사라고 지칭되었던 여성들은 대개 양반 신분이었지만, 여사가 반드시 특정 신분에 한정해 쓰인 말은 아니며 지적 능력과 관련된 일정한 직업이나 직능에 한정해서 쓰인 말도 아니었다. 조선시대 지적 여성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여사의 요건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여사(女士)의 유의어인 ‘여사(女史)’와 ‘여학사(女學士)’에 대해 잠깐 살펴보자.

여사(女史)와 여학사는 한자를 이용한 읽기와 쓰기가 가능할 뿐 아니라 그와 관련된 특정한 직분을 맡았던 여성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여사(女士)와 다르다. 우선 여사(女史)는 고대 중국에서 황후의 행실 중에 잘한 것과 잘못된 것을 기록하는 임무를 맡았던 여관(女官)이다. 조선에서도 종종 때 ‘여사동관(女史彤管)’의 제도를 마련하자는 건의가 몇 차례 있었으나 성사되지는 않았다. 종종이 그 제안을 수용하지 않은 표면적인 이유는, 옛날에는 ‘글에 능한’ 여자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 여사(女史)의 직분도 결국 역사를 기록하는 붓을 잡는 것인데 아무에게나 맡길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임금과 왕후·비빈의 일상을 기록하

는 것은 언문으로 해도 무방하다는 반론이 제기되었지만, 역시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⁴⁾

여학사 역시 중국에서 궁중에 두었던 ‘글에 능한’ 여관이다. 『여논어』의 저자로 알려져 유명한,⁵⁾ 당나라 덕종 때 인물 송약소(宋若昭)에 관한 기록은 여학사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짐작하게 한다.

송약소는 문사(文詞)가 높고 깨끗하여 시집가는 것을 원하지 않고, 학문으로 세상에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언니) 송약화가 『여논어』를 저술하자 약소가 그것을 다듬고 해석하였다. 덕종 정원 연간에 노룡 절도사 이포진이 그의 재주를 황제에게 아뢰니 조서가 내려졌다. 궁중에 들어와서 문장을 짓고 경서와 역사서를 논하니, 사람들이 모두 대단하다고 칭찬하였다. … 항상 조대가를 사모하였는데, 황제가 그 뜻을 훌륭하게 여겨 ‘여학사’라고 불렀다. 내직 상공의 관직에 제수되어 육공의 학문을 관장하게 되었으며, 그 외 책과 관련된 일을 하였다. 또 황자와 공주를 가르치는 일을 겸하였는데, 모두 그를 스승의 예로써 섬겼으니, ‘궁의 스승’으로 불렸다.⁶⁾

-
- 4) 상세한 내용은 이경하, 『동관(彤管)의 전통, 그 일상의 정치』, 『국문학연구』 15, 국문학회, 2007, 80~83쪽 참조.
- 5) 『여논어(女論語)』의 저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신당서(新唐書)』 『후비전(后妃傳)』에서 당나라 때 송약신과 송약소 자매가 『여논어』를 지었다고 했지만, 그것이 『여사서』에 수록된 『여논어』와는 다르다는 것이다.(이숙인 역주, 『여사서』, 여이연, 2003, 358~360쪽)
- 6) 『여사서(女四書)』(홍문각, 1990) 중 『송약소여논어(宋若昭女論語)』 『당서열전(唐書列傳)』, “若昭 | 文詞 | 高호고 潔호야 사림의게 도라가기를 원티 아니호고 文學으로써 세상의 일흠 나고져 호더니, 若華 | 女論語를 지어늘 若昭 | 申釋호니라. 德宗 貞元 中에 盧龍 節度使 李抱眞이 그 지조를 表호야늘 詔書호야 禁中에 드리와 文章을 시험호고 經史를 의논호니 다 稱旨호더라. … 상히 曹大家로써 스스로 評호니 帝 그 뜻을 알음다이 너기샤 女學士 | 라 일크라 內職을 拜호여 六宮 文學을 7음알게 호고 兼호야 모든 皇子와 公主를 굴리치게 호시니 다 師禮로써 섬기고 일호호야 굴르디 宮師 | 라 한다.”

당나라 덕종 정원(貞元) 연間は 785~804년이다. 시문과 경서와 역사서에 모두 능하여 궁중에서도 칭송을 들었다는 것은 문·사·철에 높은 식견을 갖추었음을 의미한다. 육궁(六宮)의 학문을 관장하게 했다는 것은 황후와 비빈들의 교육을 담당했다는 뜻이다. 황후·비빈뿐만 아니라 황자와 공주들까지 가르쳤다고 했으니, 그야말로 ‘궁의 스승’ 격이었다. 송약소가 사모했다는 조대가(曹大家)는 중국 규훈서의 전범이 되는 『여제』의 저자 반소(班昭, 48~117)를 가리킨다. 반소는 황후와 귀인들의 스승 노릇을 했을 뿐 아니라, 오빠인 반고(班固)에 이어 『한서(漢書)』를 완성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한편 송약소의 시대보다 앞선 남조 때는 진(陳)의 마지막 왕이 문학에 재능이 있는 궁녀를 뽑아서 여학사라 부르고 연회에 동원했다는 기록도 보인다. 여기서 여학사는 글과 학문에 능해서 존경 받았던 송약소의 경우와는 달리, 왕과 비빈들의 향락에 동원된 문학에 능한 궁녀를 가리킨다.⁷⁾ 위의 사례들을 통해 볼 때, 여학사는 중국에서 높은 학적 수준이나 시적 능력을 인정받았던 궁중의 특정 신분의 여성을 지칭했던 말이다.

여사(女史)나 여학사와 달리, 여사(女士)는 궁중 내의 특정한 직분과는 상관없이, 대개 상층 신분의 여성이 부덕(婦德)과 함께 지적 소양을 갖추었음을 칭송할 때 동원되는 말이다.⁸⁾ 조선시대 여성의 일생을 기록한 행장이나 묘지명 등에서 ‘여사(女士)라 칭할 만하다’는 표현을 발견하

7) 『진서(陳書)』 권7, 『열전(列傳)』 제1, <후주심황후·장귀비(後主沈皇后·張貴妃)>, “以宮人有文學者, 袁大捨等, 爲女學士, 後主每引賓客, 對貴妃等遊宴, 則使諸貴人及女學士, 與狎客共賦新詩, 互相贈答, 採其尤豔麗者, 以爲曲詞, 被以新聲, 選宮女有容色者, 以千百數, 令習而誦之.”

8) 현대국어에서 여사(女士)는 더 이상 쓰이지 않고 여사(女史)는 중세와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 사회적으로 이름 있는 여자나 결혼한 여자를 높여 부를 때 흔히 ‘아무개 여사’라고 하는데, 그 한자는 ‘여사(女史)’이다. 본래 여사(女士)로 표현되었던 개념이 여사(女史)로 전이되면서 하나로 통일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대만에서 여성 학자를 지칭할 때 ‘여사(女士)’라고 쓰는 것은 흥미로운 점이다.

기는 어렵지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그런 칭호를 붙여준 것은 아니다. 행장이나 묘지명 같은 글에서는 망자(亡者)의 인품과 재능 등에 대한 미화와 과장이 흔하고 여기에 동원되는 표현들도 상투적인 경우가 많긴 하지만, 그런 칭송이 모두 거짓이라고 할 수는 없다. ‘여사라 칭할 만하다’고 평가되는 여성들에게는 그렇지 않은 여성들과 구별되는 어떤 공통점이 있다.

총명함이 남보다 뛰어나서 항상 『열녀전』, 『여계』 등 여러 교훈서들을 공부하고, 사전(史傳)을 두루 섭렵하여 고급의 일에 통달하고, 시사(時事)를 잘 살펴 분별하였다. 실제로 식견이 특출했으나 안에 감추고 밖으로 드러내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보인 적이 없었다. 어릴 때 이종 자매들과 함께 큰외삼촌 춘파 이공에게 배웠는데, 이공이 부인을 ‘여사(女士)’라 칭하고 특히 중하게 여기며 부인의 현숙함과 빼어남이 남들은 미칠 수 없는 경지라고 하였다.⁹⁾

정제두의 누나 연일 정씨처럼, 가족이나 친척인 남성 지식인들로부터 여사(女士)라고 인정되었던 여성들은 대개 ‘매우 총명하고 기억력이 뛰어나서’, 여성에게는 ‘공식적 금지’의 영역인 한문 전적들을 고작 ‘남자형제들의 어깨너머로’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서사(書史)에 통달하고 식견이 높았다’고 기록된다. 그러나 그렇게 똑똑하기만 해서는 안 되고, 공부하는 여자의 본분이 아니라 여기며 자기가 아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¹⁰⁾ 것처럼 이른바 자기검열에¹¹⁾ 철저한 부덕을 갖추어야 비

9) 정제두(鄭齊斗), 『하곡집(霞谷集)』 권6, 『자씨정부인유사(姊氏貞夫人遺事)』, “聰睿絕人, 常習列女傳女誡諸訓, 博涉諸史傳, 通達古今, 鑑別時事, 實有特達之識, 而內而不出, 未嘗有見於人. 幼時與姨從諸妹同教習長舅春坡李公, 稱其女士特重夫人, 謂賢秀不可及.”

10) ‘총명하고 기억력이 뛰어나다’, ‘남자형제들의 어깨 너머로 글을 배웠다’, ‘서사(書史)에 통달하고 식견이 높았는데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등등 여성 행장이나 묘지명에는 여성의 지적 능력에 관한 상투적인 표현들이 많이 등장한다. 그 의미에 관한 분석

로소 여사(女士)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여사(女士)는 ‘한문 해독력, 높은 식견, 부덕’ 이 세 가지를 두루 갖춘 여성에게 부여된 이름이다. 예를 들어 김치후의 아내 전주 이씨도, 조관빈의 며느리 경주 이씨도, 황윤석의 할머니 강진 김씨도, 도암 이재의 딸 우봉 이씨도, 17~18세기를 살았던 양반 여성들 가운데 여사(女士)의 칭송을 들었던 그런 인물은 매우 많다.¹²⁾ 윤봉구가 “식견이 통달하고 뜻이 고결하니 우리 집안의 여사(女士)”라고 칭찬했던 여동생에 관한 기록을 보자.

때로는 밤이 늦도록 『소학』과 『중용』, 『대학』의 서문, <출사표>와 <귀거래사> 등을 함께 외었으니, 누이의 뜻과 생각을 알 수 있다. 사촌형 명고와 포암, 그리고 우리 형제는 비록 아침저녁으로 누이를 대하였지만, 부녀자들의 용렬하고 사소한 대화는 없었다. 오직 경사(經史)의 의리, 고금의 의론에 대해서 못되 예로써 대우하였으니, 이로써 누이동생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 … 누이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소학』에서 ‘여자는 상을 치르기 위해 백 리를 가지 않는다’고 한 것은 옛날 제후의 땅이 큰 나라도 백 리가 넘지 않고 여자가 국경을 넘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자라고 해서 부모의 상에 달려가는 것을 왜 허락하지 않겠어요?”¹³⁾

은 이경하, 『17세기 사족여성의 한문생활, 그 보편과 특수』, 『국어국문학』 140, 국어국문학회, 2005, 103~109쪽 참조.

- 11) 중세 어문생활에서 작동하는 여성의 자기검열에 관해서는 이경하, 『여성문학사 서술의 문제점과 해결방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118~122쪽 참조.
- 12) 『17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 1~4권(보고사, 2006)과 『18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 1~8권(보고사, 2010)에서 그런 사례들을 많이 찾을 수 있다.
- 13) 윤봉구(尹鳳九), 『병계집(屏溪集)』 권54, 『망매숙부인윤씨묘지(亡妹淑夫人尹氏墓誌)』, “或時夜闌, 小學及庸學序·出師表·歸去來辭諸篇, 相與諷誦, 其意想可見. 吾從氏鳴臯圃巖二兄, 暨吾兄弟雖朝夕相對, 無婦女庸瑣語, 惟經史義理, 古今言議, 與之諮詢, 從而禮貌之, 此可知爲吾妹也. … 妹嘗言: “小學女子不百里奔喪, 古者諸侯之地, 大國不過百里, 蓋以女子之不可越國而行也. 不然, 雖女子, 豈不許奔親喪耶?”

윤봉구는 자기보다 열 살 어린 여동생이 생전에 경전의 뜻과 고금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좋아했다고 회고하면서, 여동생이 얼마나 고전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고 나름의 견해를 갖고 있었는가를 서술하는 데 많은 분량을 할애하였다. 이 여동생이 언급한 “不百里而奔喪”은 『소학』 「명륜」 편에 있는 구절로, 여자의 행실이 규문을 넘어서지 않는 것이 부덕이라는 공자의 말의 일부분이다. 왜 하필 ‘백 리’를 말했는가를 윤씨 부인이 해석하고 있는데, 이는 그녀가 『소학』에 대한 주석까지 섭렵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자신의 견해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윤봉구는 이밖에도 여러 일화를 들어 여동생이 식견이 높았음을 증언하고 있다.¹⁴⁾

그런데 식견이 높다는 것은 대체 무슨 뜻인가? 식견을 지식[識]과 견해[見]라 나누어 이해한다면, 식견이 높다는 말이 단지 아는 것이 많음을 뜻하지는 않을 것 같다. 개별적인 사(事)와 물(物)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지녔을 뿐 아니라 그것들 사이의 관계와 본질을 꿰뚫어보는 눈을 가졌을 때 식견이 높다는 평가가 가능할 터이다. 여성에게 본격적인 학문이 허용되지 않았던 조선사회에서, 가족과 친지들이 ‘여사라 할 만하다’고 인정했다 해도 그 보편적 수준이 과연 어느 정도였을까는 미지수이다. 여성에게 기대하는 식견의 높이가 애당초 그리 높지 않았기 때문에, 유교 경전의 가르침과 고금의 역사에 대한 지적 호기심이 많았던 여성들에게 어찌면 더 쉽게 그런 칭호를 부여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인 남성인 친지들에게 여사(女士)라는 칭호를 들었던 여성들은 지극히 제한된 글읽기를 통해서일망정 이른바 성현의 말씀에 대해 사색하며 천리(天理)에 다가가고자 노력한 지성인이었다고 인정해주어도 좋지 않을까? 설령 그들이 역사와 철학 혹은 정치현실에 대해 자기 견해를 피력한 글 한 편을 남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말이다.

14) 윤봉구가 쓴 여동생에 대한 기록은 『18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 2권(이경하 역주, 보고사, 2010), 80~86쪽, 122~132쪽 참조.

중세 유교문명권 사회에서 여성에게 한문 전적은 접근이 극히 제한된 영역이며, 지역과 시대와 가정과 개인이라는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 그 폭은 매우 가변적이었다.¹⁵⁾ 윤지당이나 정일당처럼 한문 글쓰기를 통해 천리를 논할 수 있었던 예도 있고, 뛰어난 문인이자 학자인 아버지 김창협이 여사로 인정했지만 단 한 편의 글도 남기지 않은 김운과 같은 예도 있다. 지성의 이름이 적어도 글쓰기 여부에 달린 것은 아닌 것이다.

3. 철부(哲婦)의 논리적 말하기

여사나 여학사와는 다른 맥락에서, 이른바 똑똑한 여자를 일컬을 때 ‘철부(哲婦)’란 말이 있다. 『시경』에서는 “똑똑한 남자는 성(城)을 세우지만 똑똑한 여자는 성을 무너뜨린다.” 하고, 똑똑한 여자가 ‘긴 혀’를 가지고 환란을 일으키니, 환란은 하늘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여자로부터 생겨난다고 했다.¹⁶⁾ 『시경』의 이 구절에 대한 주석을 보면, 철부의 ‘皙’은 지모(智謀)가 뛰어나다는 뜻이고 ‘긴 혀[長舌]는 ‘말 많음[多言]을 비유한다고 되어 있다.¹⁷⁾ ‘말 많음’은 일찍이 칠거지악의 하나로 지목된 것으로,¹⁸⁾ 단순히 수다스러움을 뜻한다기보다는 사람들 사이에 시비와 분란

15) 조선시대 양반 여성들의 한문학적 소양은 그 편차가 매우 컸다. 한문으로 글쓰기가 가능한 경우, 글쓰기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높은 수준의 글읽기에 도달한 경우, 양반으로서 신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양만 갖춘 경우로 크게 나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이경하(2005), 앞의 글, 109~115쪽 참조.

16) 『시경(詩經)』, 『대아(大雅)-탕지십(蕩之什)』, <침양(瞻仰)>, “哲夫成城, 哲婦傾城, 懿厥哲婦, 爲梟爲鴟, 婦有長舌, 維厲之階, 亂匪降自天, 生自婦人.”

17) 『모시주소(毛詩注疏)』 권25, “箋云; 哲謂多謀慮也, 城猶國也. … 長舌喻多言語.”

18) 『내훈(內訓)』, 『혼례장(昏禮章)』, “婦 | 有七去 一 不順父母 去 二 無子 去 三 淫 去 四 妒 去 五 有惡疾 去 六 多言 去 七 竊盜 去 | 니라.” 이 구절은 본래 『대대례기(大戴禮記)』 권13 『본명(本命)』의 일부분인데 『소학』 『명륜』편에 실렸다가 다시 『내훈』에 인용되었다.

을 일으키는 말하기 행위를 가리킨다.

『시경』에서 나라와 집안을 망치는 재앙의 근원으로 지목하고 경계한 ‘철부의 긴 혀’는 분명 부정적 함의를 지닌 것이다. 그러나 이른바 ‘똑똑한 여자의 긴 혀’에 대해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요즘 세상에 재기 있는 부인들이 간혹 당파의 종류와 색깔, 문벌의 높고 낮음, 벼슬아치의 승진과 좌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일가친척의 남자와 여자들이 야단스럽게 그 재능을 칭찬한다. 아이! 이는 실로 가정을 어지럽히는 근본이니, 여기서 더 나가면 바깥일에 참여하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서경』에서는 “암탉이 새벽에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 했고, 『시경』에서는 “긴 혀를 가진 여자가 환란을 일으킨다.”고 했다.¹⁹⁾

똑똑한 여성의 말하기에 대한 경계는 고대 중국으로부터 조선후기까지 지속된 오랜 성별지식 중 하나이다. 『서경』에서 경계했던 ‘새벽에 울어 나라를 망친 암탉’은 중국 은나라 말기 주왕의 비 달기이다. 『시경』에서 지목한 ‘긴 혀를 가진 여자’는 중국 주나라 말기 유왕의 비 포사이다.

이덕무는 당대 정치현실에 대해 잘 알고 그에 대해 떠벌리는 ‘재기 있는 부인들’을 마뜩찮게 여기고 있다. 사색당과 혹은 관리들의 승진 좌천 여부를 잘 안다는 것은 그 여성이 당대의 정치현실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많다는 뜻이다. 여기서 이덕무가 경계한 것은 여성이 정치현실에 대해 많이 안다는 사실 자체보다, 여자의 본분이 아닌 바깥일에 대해 아는 체하고 여러 사람 앞에서 자기 견해를 펴는 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19) 이덕무(李德懋), 『사소절(士小節)』, 『부의(婦儀)』, ‘사물(事物)’, “近世婦人, 有才氣者, 或談及偏黨色目, 家閥高下, 科宦陞黜之事, 則姻族男女, 嘖嘖稱其能也. 嗚呼! 此誠亂家之本也. 推此以往, 參與外事, 無所不至, 故書曰: 牝鷄司晨, 惟家之索. 詩云: 婦有長舌, 惟厲之階.”

듯하다. 그것은 자기검열에 철저하지 못한, 부덕에 어긋나는 행위이며, 그런 여성은 달기나 포사와 같이 나라와 집안을 망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일 것이다.

달기와 포사를 비롯하여 재앙의 근원으로 지목된 여성들에 대한 고전은 바로 유향의 『열녀전』 제7장 『얼폐전』이다. 그 가운데, 진나라 헌공의 두 번째 부인 여희는 환란의 근원이 된 ‘긴 혀의 철부’로 유향이 지목한²⁰⁾ 대표적인 여성이다. 여희는 헌공의 첫 번째 부인이 죽은 후 헌공의 부인이 되었는데, 태자 신생을 몰아내고 자기 아들을 태자로 세우기 위해 치밀한 음모를 꾸민다. 유향은 여희가 그 음모를 실현해 가는 과정에서 ‘긴 혀’로써 헌공의 마음을 어떻게 쥐락펴락하는지를 상세하게 그리고 있다.

일단 여희는 헌공을 설득하여 제강의 아들인 태자 신생을 먼 곡옥 땅으로 보낸다. 명분은 확실했다. 곡옥 땅은 선군(先君)의 사당을 모신 곳이니 책임자를 두어야 한다는 것, 그래야 백성들이 외경하고 외적이 두려워한다는 것, 그리고 태자가 그 책임자라는 것이었다. 헌공은 그 말에 수긍한다. 음모 1단계를 성공시킨 여희는 이제 밤마다 울면서 헌공과 태자 사이를 이간질하기 시작한다. 헌공이 여희에게 흘려 나라를 어지럽힌다고 태자가 생각한다는 것, 그래서 백성을 위해 주군을 시해하려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백성을 위해 아버지를 버린 역사속의 인물들을 열거하며 헌공의 불안과 의심을 키운다. 음모 3단계는 태자에 대한 직접적인 모해였다. 여희는 태자가 가져온 제사 음식에 독약을 몰래 넣어, 태자가 헌공을 시해할지 모른다는 자신의 예측이 사실이었음을 헌공 앞에서

20) 『열녀전』, 『얼폐전』, <진현여희>의 말미에 “『시경』에서 ‘긴 혀를 가진 똑똑한 여자는 환란의 근원이요, 똑똑한 여자는 성을 기울이네’라고 한 것은 이를 두고 한 말이다.”라는 논평이 있다. 『열녀전』 각 편의 상세한 내용은 이숙인 역주의 『열녀전』(예문서원, 1996) 참조. 이하 동일.

극적으로 증명해 보이고 울부짖는다. 결국 태자 신생은 사당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태자 자리는 여희의 아들 해제에게 돌아갔으며, 5대 동안 난세가 계속되었다고 유향은 적고 있다.

적어도 『열녀전』에 재현된 여희는 정세 파악이 정확하고 치밀하게 사고하며 유창하게 말을 잘하는 여성이다. 여희는 자신의 아들을 태자로 세우기 위해 치밀하게 음모를 계획하고 단계적으로 실행에 옮겼다. 제사 음식에 독을 넣어 세자를 음해하는 최종 단계에 착수하기 전에, 여희는 이미 ‘긴 혀’로써 헌공의 마음을 태자에게서 멀리 떨어놓았다. 헌공과 태자 신생은 부자(父子)라는 혈육관계이면서 언제든 정적일 수 있는 정치적 관계이기도 한데, 여희는 그러한 인간의 사적 관계와 정치적 관계의 복잡 미묘함을 간파하고 있었다. 그렇게 헌공의 마음을 읽고, 눈물과 함께 유창한 말로써 그 마음을 움직일 줄 알았다. 여희는 지모와 언변이 뛰어난 여성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열폐전』과 달리, 유향의 『열녀전』에는 ‘지배질서가 긍정하는’ 말 잘하는 똑똑한 여성들에 관한 기록도 상당히 많다. 『변통전(辯通傳)』은 제목에서부터 유창한 언변을 특징으로 내세우는데, 이 장은 한 마디로 고전에 대한 지식과 사물의 이치에 통달하고 말 잘하는 여성들의 예화를 묶은 것이다. 『인지전(仁智傳)』 역시 고금의 역사에 밝고 정치적 안목이 뛰어난 여성들의 전기인데, 이들의 식견과 지혜가 드러나는 방식도 주로 그들의 조리 있는 말을 통해서이다.

예를 들어, 제나라의 ‘혹부리 여자’(宿留女)는 민왕이 순행하던 중에 길가 뽕밭에서 우연히 만났다가 그녀의 현명함에 감복하여 궁으로 불러들이고 결국 왕후로 삼은 여성이다. 숙류녀는 무엇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소신이 뚜렷했고, 그만큼 왕 앞일지라도 주저하거나 굽힘없이 자신의 소신을 당당히 말하였으며, 그 언사는 조리가 정연했다. 왕이 건네는 말한 마디에도 다소곳이 수긍하는 법 없이, 늘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말

하며 왕의 관점이 틀렸음을 지적했다. 민왕이 숙류녀의 목에 달린 혹을 측은하게 여기자 오히려 “혹이 뭐 어떻다는 것입니까?” 하고 되묻고, 민왕이 그녀를 수레에 태우도록 명하자 “부모의 허락 없이 왕을 따라 간다면 분녀(奔女)와 다름이 없습니다.” 하고 거절한다. 민왕이 사죄하고 다시 예를 갖추어 숙류녀를 궁으로 불러들였는데, 그녀의 누추한 행색을 본 궁의 부인들이 웃자, 민왕은 탄에 그녀를 옹호한다고 “꾸미는 것과 꾸미지 않는 것은 열 배 백 배의 차이일 뿐이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숙류녀는 이 말을 다시 받아서 요·순과 걸·주의 차이를 들어 꾸밈과 꾸미지 않음의 차이를 역전시키고²¹⁾ “그 차이는 천 배 만 배라 해도 부족합니다.”라고 반박한다. ‘사리에 통달하고 예에 익숙하며 대단히 현명하다고 평가되는 ‘혹부리 여자’는 그렇게 왕후의 자리에 올랐고, 근검절약과 인의를 중시하는 그녀의 신조에 따라 제나라를 재정비한 민왕은 제후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었다.²²⁾

‘내조의 여왕들’ 가운데에는 숙류녀처럼 유창한 언변을 통해 사리를 밝혀 남편을 바른 길로 인도한 경우가 많다.²³⁾ 예를 들어, 변희의 내조는 “장왕이 패업을 이룬 것은 변희의 힘이다”라고까지 칭송되는데, 그 힘은 무능한 재상 우구자를 물러가게 하고 유능한 새 재상을 기용하도록 설득한 논리 정연한 언변과 현실의 문제점을 간파하는 통찰력이라고 할 수 있다. 장왕이 재상 우구자를 ‘현자(賢者)’라고 칭한 데 대해, 변희는 “우구자가 어진 사람일 수는 있지만 충성스럽지는 못합니다.”라고 운을 떼고, 그 까닭을 묻는 장왕에게 우구자가 재상의 재목으로 왜 부족한가에

21) 민왕은 비단과 장신구로써 외양을 치장하는 꾸밈을 말했고, 숙류녀는 인의로써 내면을 꾸밈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22) 『열녀전』, 『변통전』, <제숙류녀>

23) 숙류녀뿐 아니라 조나라 장왕의 부인 변희와 소왕의 첩 율희 등 본래 유형의 『열녀전』에 실렸던 이 기사들은 소혜왕후 『내훈』 『부부장』에도 모범적인 아내의 예화로 다시 인용되었다.

대해 설명한다. 즉 우구자가 십여 년간 재상으로 있는 동안 현인(賢人)을 추천했다는 말도, 무능한 자를 물리쳤다는 말도 듣지 못했다면서, 그것은 곧 현인들의 길을 막고 군주의 판단을 막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현인인 줄 알면서 천거하지 않았다면 불충이요, 누가 현인인지 몰랐다면 지혜가 없다는 뜻이라고 단언했다. 장왕은 우구자에게 변희의 말을 전했다, 우구자는 조용히 물러나며 손숙오를 재상으로 천거했다. 손숙오의 보좌를 받은 장왕은 3년만에 패주가 될 수 있었다.²⁴⁾

숙류녀와 변희, 그리고 여희는 지배질서로부터 정반대의 평가를 받았지만, 말 잘하는 똑똑한 여성들이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들의 논리적인 유창한 언변은 이른바 ‘여성적’ 말하기의 테두리에 속하지 않는다. 여성은 흔히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자유롭게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소유하지 못한 ‘무언자(無言者) 집단’으로 간주된다.²⁵⁾ 때문에 여성의 자기 진술은 말하는 동기나 맥락이나 내용이나 표현방식이 모두 남성의 자기 진술과는 다르다고 평가하기도 한다.²⁶⁾

그러나 숙류녀와 변희처럼, 『열녀전』에는 유창하고 논리적으로 말하기에 능한 여성인물들이 의외로 많다. 조선후기 소설들에서도, 황제나 부친이나 남편 앞에서 자신의 의사를 당당하고 조리 있게 표현하여 상대방의 말문을 막히게 하는 똑똑한 여주인공들은 낯선 모습이 아니다.²⁷⁾ 여희와 같은 인물은 자신의 능력을 사적 이익을 위해 악용했기에 역사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변희 등의 유창한 언변은 인의와 예와 충과 같은 지배질서가 인정하는 공적 가치들로 채워져 있다. 여희에게는

24) 『열녀전』, 『현명전』, <초장변희>

25) 테보라 케메론 저, 이기우 역, 『페미니즘과 언어이론』, 한국문화사, 1995, 162쪽.

26) 김성례, 『여성의 자기진술의 양식과 문체의 발견을 위하여』, 『또 하나의 문화: 여자로 말하기, 몸으로 글쓰기』 9, 1992, 119쪽.

27) 이경하, 『하옥주론: <하진양문록> 남녀주인공의 기질 연구(1)』, 『국문학연구』 6, 국문학회, 2001, 241~245쪽.

지성의 이름을 부여하기 어렵다 해도, 변희 등이 보여준 말하기의 국면은 여성 지성이 발현되는 방식으로서 글쓰기 못지않게 주목해야 할 지점이다.

4. 언문/구술을 통한 지식의 습득

이중언어문자가 통용되었던 중세 사회에서는 공동문어문자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계층과 성별에 따라 현격하게 달랐던 것이 어느 문명권에서나 보편적인 현상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조선에서 공동문어인 한자는 ‘문자(文字)’ 또는 ‘진서(眞書)’라고 지칭되어 민족어문자 ‘언문(諺文)’과 구별되었다. 조선은 한글 창제 이후 성별과 계층에 따른 문자사용의 위계가 더욱 복잡해졌다고 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문자사용에 있어서도 성별분리주의에 입각해 있었다. 예컨대 당사자가 실제로 한문을 알고 모르고와 상관없이, 최상층 여성인 왕비나 대비도 공식문서는 ‘언문-암글’로 작성해야 했다.²⁸⁾

그런데 중세 한자문명권에서 한문 전적을 직접 통하지 않고서도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고 도덕적 본체에 대한 자각에 도달하는 것이 가능할까? 한문 실력이 짧은데 문학과 역사와 철학을 공부하고 높은 식견을 쌓을 수 있을까? 조선의 여성들이 ‘부덕에 흠이 가지 않는 선에서’ 중세의 보편 문자인 한문, 그 한문이 전달하는 이른바 보편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훈민정음 1세대라 할 수 있는 소혜왕후가 여성교육을 위해 편찬한 『내훈』은 한문 해독력과 고전적 지식이 부족한 여성독자를 위한 여러 장치를 두고 있다. 우선 전체 116조목이 각각 한문 원문과 언해문의 세트

28) 이경하(2004), 앞의 글, 107~112쪽.

구성되어 있고, 언해문에서는 한자 옆에 한자음을 한글로 병기하였을 뿐 아니라, 한자어와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세주(細註)를 적극 활용하였다.²⁹⁾ 『내훈』 「부부장」의 한 대목을 예로 든다.

[한문] 夫婦之道는 參配陰陽호며 通達神明호니 信天地之弘義며 人倫之大節也 | 라. 是이로 禮貴男女之際호고 詩著關雎之義호니 由斯言之컨댄 不可不重也 | 라.

[언해문] 부부의 도는 음양의 원리에 부합하고 천지신명과 통하니, 진실로 하늘과 땅의 큰 뜻이고 인륜의 큰 일이다. 이 때문에 『예기』는 남녀관계를 귀중하게 다루었고 『시경』은 ‘관저’의 뜻을 드러내었다. 【관저(關雎)는 『모시(毛詩)』의 편명이다. 관(關)은 암수가 서로 조화롭게 우는 소리이고, 저구(雎鳩)는 물새 이름이다. 짝을 한번 정하여 서로 어지럽게 하지 않으며, 둘이 항상 나란히 짝지어 놀되 서로 친압하지 아니하여, 뜻이 지극히 되 분별이 있다. 주나라 문왕이 성스러운 덕을 갖추시고 성녀 사씨를 얻어서 배필을 삼으셨는데, 사씨가 처음 오실 때 유한정정(幽閑貞靜)한 덕이 있었기 때문에 궁중의 어떤 사람이 이 시를 지어 말하기를 “서로 화락하며 공경하심이 저구새와 같으시다” 하였다. 유(幽)는 깊다는 뜻이고, 한(閑)은 편안하고 고요하다는 뜻이고, 정(貞)은 일정하다는 뜻이고, 정(靜)은 마음이 깨끗하다는 뜻이다.】 이로 말미암아 말하건대, 남녀관계는 중히 여기지 않아서는 안 된다.³⁰⁾

29) 이경하, 「15세기 상층여성의 문식성(literacy)과 읽기교재 <내훈>」, 『정신문화연구』 118, 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30) 언해문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한자 옆에 병기된 한자음을 생략하고 인용한다. “夫婦의 道는 陰과 陽과이 마즈며 神明에 스므즈니 眞實로 하늘과 싸랏 큰 義며 人倫의 큰 ㅁ디라. 이런드로 禮에 男女스 스시를 貴히 너기고 毛詩에 關雎스義를 나토니 【關雎는 毛詩 篇스 일후미니 關은 암수히 서르 和히 우는 소리오 雎鳩는 ㅁ렛 새 일후미니 ㅁ글 一定호야 서르 어즈러이 아니호면 둘히 상네 ㅁ와 노로더 서르 즈올아 이 아니호야 ㅁ디 至極호더 ㅁ글호미 잇느니라. 周 文王이 나 聖德이 거시고 또 聖女 媿氏를 어드샤 配匹을 사마시닐 ㅁ中스 사르미 그 처섬 오실 제 幽閑貞靜호 德이 거실시 이 詩를 지서 ㅁ오더 서르 和樂호시며 恭敬호사미 雎鳩 | ㅁ호시다 호니라.

인용이 다소 길지만, 언해문의 세주가 어떤 기능을 하는가를 보이기 위해 모두 옮겼다. 【】부분이 ‘관저의 뜻을 드러내었다’는 구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첨가된 세주이다. 긴 주석 탓에 한문 원문보다 언해문이 훨씬 길어졌다. ‘관저’는 『시경』에 수록된 305편 가운데 첫 번째 시의 제목이다. “요조숙녀는 군자의 좋은 짝[窈窕淑女, 君子好逑]”이라는 구절로 유명한데, 언해문 세주는 군자를 주나라 문왕으로, 그 짝이 되는 요조숙녀를 태사로 보고 이 시가 후비의 덕을 읊은 것이라는 전통적인 『모시』의 해석을 옮겼다. 또한 『幽·閑·貞·靜』 각 글자의 뜻을 풀이해 태사의 ‘유한정정한 덕’의 의미를 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내훈』은 한문의 한글 번역뿐 아니라 언해문의 세주를 이용해 한문학적 소양이 적은 여성독자들을 고전의 세계로 친절하게 이끌고 있다. 애당초 소혜왕후가 『내훈』을 기획하면서 전체 116조목을 『소학』을 비롯한 중국 고전들 속에서 발췌한 문장들로 채운 것도, “실의 굽고 가는 것만 알고 덕의 높음을 알지 못하는” 여성의 현실을 안타깝게 여기고 여성도 이른바 성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여겼기 때문이었다.³¹⁾ 『내훈』을 매개로 『소학』을 만나고 『소학』을 매개로 『예기』 『논어』 『맹자』 등의 고전을 만날 수 있게 기획한 것은, 세상과 소통하고 스스로를 성찰하는 힘이 성현의 말씀을 듣는 데서 생기고 고전을 읽는 것이 그 유용한 방편이라고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15세기 중·후반에 아직 한글로 된 책이 흔치 않았음을 감안하면, 한문 전적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적은 여성들에게 『내훈』이 갖는 위상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幽는 기쁠시오 閑은 安靜할시오 貞은 一定할시오 靜은 ㅁ스미 조할 시라.】 이를
부터 니르건댄 重히 너기디 아니호미 문히리라.”

31) 『내훈』은 분명 규훈서이지만, 116조목이 담고 있는 지식은 성별지식 즉 ‘부덕’이란 이름으로 다 설명되지 않는다. 『내훈』이 전달하는 지식의 성격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이경하, 『소혜왕후 <내훈>의 <소학> 수용 양상과 의미』, 『대동문화연구』 70, 성대 대동문화연구원, 2010 참조.

17세기가 되면 한글로 된 책의 종류가 훨씬 다양해지고, 특히 한글소설이 여성독자의 흥미로운 읽을거리로 급부상하면서 동시에 그들의 교양 형성에도 기여하는바 컸음은 주지의 사실이다.³²⁾ 국문소설도 층위가 매우 다양해서 일괄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예컨대 19세기에 향유된 대하소설 <명행정의록>은 국문소설이 상층여성의 한문학적 소양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예이다.³³⁾

이 국문소설에는 상당수의 한시가 삽입되어 있는데, 삽입 한시 중에는 『명시중(明詩綜)』이나 『산당사고(山堂肆考)』와 같은 명·청대의 유명한 시선집에서 발췌 인용한 것들이 꽤 있다. 삽입된 한시는 대개 작중 서사의 맥락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원시(原詩)가 갖는 의미와 품격을 독자가 느낄 수 있다. 다음은 여주인공 이월혜가 매화를 두고 지은 시이다.

| | |
|---------|-------------------------|
| 수정궁니옥진비 | 수정궁 안희 옥진비가 |
| 연파요디보월귀 | 잔치를 요디의 파하고 둘을 거러 도라오도다 |
| 형도적성턴미효 | 형하여 적성의 니르러 하늘이 새지 아나시니 |
| 녕하비상늑슈의 | 찬 안기 나라 늑슈의의 올낫도다 |

이 시는 본래 중국 원나라 때 시인 유기(劉基)의 <제화홍매(題畫紅梅)>이다.³⁴⁾ 원시가 분명 한시지만, 국문소설인 <명행정의록>에는 한자가 등장하지 않는다. 한시 7언절구의 한자음을 한글로 표기하고, 각 구절을 번역해서 실었다. 이월혜를 비롯한 여성인물들이 같은 자리에서 매화를 소재로 한 시를 짓는 대목에서, 위연청이란 인물이 그들의 시를 한 편씩 감상한 소회를 서술하는 것은 유명한 한시 작품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와

32) 고전소설과 여성 교양의 관계에 대한 기본 관점을 정립한 초기의 대표적인 논문은 임형택 교수의 「17세기 규방소설의 성립과 <창선감의록>」(『동방학지』 57, 1988)이다.
 33) 서정민, 『명행정의록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6.
 34) 원시는 다음과 같다. “水晶宮裏玉眞妃, 宴罷瑤臺步月歸, 行到赤城天未曉, 冷霞飛上六銖衣.” 위의 논문, 91쪽 재인용.

감상을 돕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명행정의록>은 전범으로 삼을 만한 고급의 한시 작품들을 소설 내에 수용함으로써, 한문 문해력이 없는 독자들보다 깊이 있게 한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³⁵⁾

한시를 한글로 향유하는 방식은 우리에게 다소 기이해 보이지만, 18~19세기 조선의 여성들에게는 그리 낯선 것이 아니었다.³⁶⁾ 한시뿐만 아니라 『논어』 『맹자』와 같은 경전의 한문 문장도 여성들의 독서물에서는 언해문의 형태를 띠었다. 즉 “즈ㅣ왈 혹이시습지면 불역열호아”³⁷⁾와 같이 시각적 기호로서의 ‘한자’는 빠진 채 청각적 기호인 한문 문장의 소리와 그 의미만 전달하는 형태로 습득되었던 것이다.

또한 국문소설은 ‘이야기’가 주는 재미 외에도 고급의 역사와 문학에 대한 고전적 지식을 넓힐 수 있는 중요한 통로였다. 안정복의 어머니는 한번 읽은 소설 내용을 다 기억해서 “중국의 상고시대부터 명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는 고려 말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 나라의 치란(治亂)과 인물의 현악(賢惡)에 대해 관통하지 않음이 없었다.”고 했다.³⁸⁾ 한문을 배우지는 못했으나 역사 이야기를 좋아했고 국문소설 수백 여 권을 읽었다는 안정복의 어머니 전주 이씨와 같은 여성들에게, 특히 녹책류의 국문소설은 흥밋거리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이다.

한자를 몰라도 한시를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은 한시의 향유방식이 갖는 구술성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근대인에게 시가 눈으로 ‘읽는’ 대상이라면, 중세인에게 시는 눈으로 읽기 이전에 귀로 ‘듣고’ 입으로 ‘ 읊조리는’ 문학이라고 차별화할 수 있다. 한시는 한자라는 문자를 매개로 이루어지

35) 위의 논문, 92쪽.

36) 박무영, 『김호연재의 생애와 『호연지유고』』,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1.

37) 『곤법』 권2, 『론어』, 『혹이』

38) 안정복이 쓴 어머니 행장의 자세한 내용은 『18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 8권(김남이 역주, 보고서, 2010), 283~291쪽 참조.

지만, 한자로 종이에 기록되기 이전에 입으로 듣고 외는 단계가 매우 큰 비중을 갖는다. 한시를 한자가 아닌 한글의 형태로 적고 감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구술성이 강한 한시향유의 특성과 소리글자인 한글의 구술적 특성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국문소설 역시 엄연한 기록문학이지만 향유방식에 있어서 구술성을 강하게 띠었다는 것은 많이 지적된 사실이다. 특히 여성들의 소설 향유는, 개인의 고독한 묵독을 통해서가 아니라 누군가 소리 내어 읽고 누군가는 그것을 듣는 집단적·구술적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처럼 고급에 대한 지식을 넓히고 자신의 견해를 세우며 도덕적 완성에 이르러자 하는 욕망을 채우는 방편으로, 조선의 여성들은 언문과 구술의 힘에 많이 의지했다. 그것은 문자사용의 성별분리주의에 입각한 조선에서 한문과 언문, 문자와 구술 사이의 위계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안전한 길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중세 조선을 살았던 여성들이 지성을 구축하고 발현하는 방식은 단지 한문을 매개로 한 고급의 독서와 글쓰기에 한정할 수 없는 것이다.

5. 맺음말

이 글은 중세의 여성 지성을 이야기할 때 한문으로 글쓰기가 가능했던 여성 문사들에 논의를 한정하는 시각이 온당한가 하는 단순한 물음에서 출발했다. 그것은 조선사회에서 한문을 알고 모르고의 여부가 여성 지성의 구축과 발현에 있어 얼마나 필수적인 것인가 하는 심각한 질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2장에서는 조선에서 지적인 여성을 가리키는 말로서 여사(女士)에 주목하여, 그들 대부분이 비록 글쓰기의 주체일 수

없었지만 그들에게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나 광범위한 한문 전적의 읽기를 통해 지성의 구축에 힘썼던 존재였음을 논의하였다. 3장에서는 여성 지성의 발현이 글쓰기 외에 말하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측면에 주목하여, 『열녀전』에 실린 ‘말 잘하는’ 똑똑한 여성의 원형들을 살폈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한문이 아닌 언문서의 읽기와 듣기가 여성 지성의 구축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었는가를 논의하였다. 요컨대, 중세 유교문명권의 여성 지성을 이야기할 때 공동문어인 한문으로 글을 쓰는 능력이 핵심일 수 없다는 말이다.

이 글 첫머리에서 지성을 정의하면서, 부단한 공부를 통해 사물에 내재한 이치를 깨닫고 실천하는 정신이라고 하였다. 공부란 것이 문자화된 책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면, 참된 지성에 도달하는 데 있어 문자의 소유 여부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이른바 ‘불립문자(不立文字)’에 대한 믿음은, 이 글의 전제와 결론이 비단 중세/여성에게만 한정되는 것도 아닐 수 있음을 대변한다. 문자와 지성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는 사실 단순한 문제가 아니지만, 이 글에서는 거칠게나마 중세/여성의 경우 특별히 그러한 조건들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하였다.

끝으로 여성지성과 덕의 관계에 대해 사족 한 마디를 보탠다. 유가에서 말하는 지성은,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고 깨닫는 것에서 나아가 도덕적 본체에 대한 자각과 실천을 겸해야 한다고 했다. 이른바 덕의 실현에 기여하지 못하는 해박한 지식, 직관과 통찰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런데 실현해야 할 덕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답하기 어렵다. 중세 유교질서가 요구한 ‘부덕’이 역사적·사회적 구성물로서 절대불변의 가치가 아님은 분명하고, 허난설헌의 예에서 보듯이 중세의 지적인 여성에 대해 부덕이란 기준을 들이대어 부당한 평가를 부여한 역사적 사례도 뚜렷하다. 그러나 중세의 여성과 관련된 제반 논의에서 부덕에 대

한 논의를 유교적 가부장제의 억압성이란 측면에서만 단순화시키는 것은 너무 안이한 태도일 수 있다. 중세 사회에서 여성 지성과 부덕 혹은 덕의 관계는 그리 단순하지 않아 보인다. 남녀를 불문하고 중세 지성의 요건으로 이른바 덕의 실현, 즉 실천을 강조했다라는 점은 현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 참고문헌

- 『內訓』(영인), 연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69.
- 『女四書』(영인), 홍문각, 1990.
- 『文淵閣四庫全書內聯網版』, 迪志文化出版有限公司, 2004.
- 김남이 역주, 『18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 8, 보고서, 2010.
- 김성례, 「여성의 자기진술의 양식과 문체의 발견을 위하여」, 『또 하나의 문화: 여자로 말하기, 몸으로 글쓰기』 9, 또 하나의 문화, 1992, 115~137쪽.
- 데보라 케메론 저, 이기우 역, 『페미니즘과 언어이론』, 한국문화사, 1995, 1~294쪽.
- 박무영, 「김호연재의 생애와 『호연지유고』」,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1, 97~125쪽.
- 서정민, 「명행정의록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6, 1~242쪽.
- 이경하, 「하옥주론: <하진양문록> 남녀주인공의 기질 연구(1)」, 『국문학연구』 6, 국문학회, 2001, 227~251쪽.
- 이경하, 「17세기 사족여성의 한문생활, 그 보편과 특수」, 『국어국문학』 140, 국어국문학회, 2005, 101~120쪽.
- 이경하, 「15세기 상층여성의 문식성(literacy)과 읽기교재 『내훈』」, 『정신문화연구』 118, 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317~340쪽.
- 이경하, 「소혜왕후 『내훈』의 『소학』 수용 양상과 의미」, 『대동문화연구』 70,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0, 229~253쪽.
- 이경하 역주, 『18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 2, 보고서, 2010.
- 이숙인 역주, 『열녀전』, 예문서원, 1996.
- 이숙인 역주, 『여사서』, 여이연, 2003.
- 이혜순, 『조선조 후기 여성지성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7.
- 임형택, 「17세기 규방소설의 성립과 <창선감의록>」, 『동방학지』 57, 연세대학교 동방학연구소, 1988, 103~176쪽.
- 한국사상사연구회 편, 『조선 유학의 개념들』, 예문서원, 2002, 350~373쪽.
- 황문환 외 4인, 『역주 곤범(자료편)』, 역락, 2008.

Abstract

Relations of Women's Intelligence and Letter in *Joseon* Korea

Lee, Kyung-ha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a problem how essential an ability of writing in Chinese character was to construct and reveal women's intelligence in Middle Ages. As everyone knows, *Joseon* Korea was a society of Diglossia where the order of rank between Chinese character and *Hangul* was established by their social status and gender. Opportunities of women's learning 'letter'(Chinese character), even if the upper class, was very restricted in that society. That's why I suggest in this paper a different viewpoint about women's intelligence in Middle Ages.

In Confucian society like *Joseon*, Intelligence was regarded as spirit that could study hard to seek the truth, and realize reason of the universe. In addition, an intelligent must have self-consciousness of ethical agent and try to realize ethical virtue, *Deok*(德). According to this concept of intelligence, it was not exclusive property of the educated elite or the upper class who were able to read and write in Chinese character. Intelligent women called *Yeosa*(女士) tried to build their intelligence through reading books in Chinese character, who they could not write anything in it. In *the Biographies of Women (Yeolnyeojeon)*, bright and eloquent female speakers, called *Cheolbu*(哲婦), revealed their intelligence by speech, not by writing. Also, reading books written in *Hangul* and listening to knowledge of Confucian's canons were very important methods that many women commonly choose to improve their intelligence in *Joseon*.

Key words : Intelligence, Letter, Diglossia, *Yeosa*(女士), *Cheolbu*(哲婦)

- 본 논문은 10월 31일에 접수되어 11월 8일부터 20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11월 26일에 게재 확정되었음.